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 joo3

각종 방문판매로 피해학생 속출

신입생 대상으로 '취업책 준비'유혹

이제는 그 짜증나던 중간고사도 끝나고 1학기의 중간이 후다닥 지나가 버린다. 나로선 두번째 맞이한 1학기였지만, 신입생인 94학번들에게는 1학기란 아마도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대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신입생에게는 재학생들과는 달리 사그러지지 않는 무수한 꿈들이 있다. 수많은(?) 이성과 만나서 진정한 지신의 짝을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지상 최대의 문제로 바닥까지 고민도 해보고 싶고, 틈나는 시간 때때로 전국을 유람해 보고도 싶고,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돈으로 유럽이나 아시아를 배낭여행도 하고 싶을 것이다. 또 배움을 수 없이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것 등은, 누군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열하지 않아도 신입생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부푼 꿈과 희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입생들의 꿈을 악용해서 돈을 챙겨먹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교내에서 순진한 신입생들을 노리는 영어테잎 장사와 기사(技士)자격증 관련 책장사들이다.

언제부터였는지 대학교엔 막 걸리잔에 인생이 실리는 낭만외에 취업이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우리들의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학년때부터 취직에 관심을 기져야 했고 TOEIC시험이 언제인지 알아야 했고 자격증 관련 서적을 뒤적거려야 했으며 1학년때부터 도서실과 열람실을 부지런히 왕복해야 하는 올 수도 옷을 수도 없는 환경을 서로가 조성하게 되었다. 물론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괴할 길이 없는 한 누구나 할 일이라면 해야한다.

더군다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데……. 문제는 이를 이용해먹는 이들이 문제이다. 벌써 당했을지도 모름(?) 신입생들에게 조그만 충고를 해주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이 이 대학 선배라면서 강의실에 들어오거나 붙잡아서는 학교 얘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장황하게 취직 문제까지 얘기를 할 것이다. '요즘은 취직이 안된다. 이공계도 취직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회점따기는 더 어렵다. 그러니 영어 준비나 쉬운 기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이라면 신입생의 경우는 신입생이 가지는 꿈의 크기는 비례해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이다. 취직 걱정. 그래서 솔깃한 척만 보이면 장사꾼은 이때 영어 테잎을 꾸준히 하루에 30분씩만 들으면 석달이면 AFKN이 들리고 노력만 그대로 한다면 일년 후에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 TOEFL 5백점만 맞으면 대기업 어디에서든지 오라는 팔을 벌리는데 이 테잎이면 1년 안에 무난하다고 한다.

기사 자격증관련 책장사들은 자신도 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이 자격증은 지금 국가에서 인력이 매우 시급한 관계로 인원을 절대 다수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전망이 좋고 시험문제도 상당히 쉬우며 누구나 3개월이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시에는 월급도 많이 주며 승진도 빠르고, 맘만 먹으면 작은 회사도 차릴 수 있다고 한다.

영어는 필수이다. 그래서 우린 10여년 가까이 영어에 얽매여 살아왔다. 그래도 외국인과 회화가 용이치 않다. 그런데 장사꾼들은 팔면서 마치 사기만 하고 귀에 어어폰만 꽂으면 몇달후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린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못하다. 어느 테잎이라도 영어는 본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또 그들이 금액을 제시할 때는 한달에 심만원대를 훨씬 웃도는 영어학원보다도 싸고 시간적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적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60여만원까지 부르는 가격은 학원비보다 쌀 수가 없으며, 시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사자격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쾌만 팔면 끝나지만 공부할 우리들은 그게 아니다.

모든 기사는 대학 재학 3학년 때부터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 1학년때도 국가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응시하게 해준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이다. 또 모든 기사공부는 어렵다. 소설식으로 읽는다고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만큼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쉬운 기사시험으로 기사가 됐다고 남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제시하는 책이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등지에서 유사한 책들이 그들이 보통 제시하는 가격보다 약 10배나 싼 만원 내지 이만원에 팔리고 있다. 또 그 책장사들이 책을 구입하면 자기네 회원이 되서 책 이외에 모의문제도 보내준다지만 그것도 2개월 정도가 고작이고, 시험일자나 응시자격에 대한 언급은 그렇로 끝이다.

만약 벌써 구입해 버린 학생이 있다면 반품할 방법을 찾던가, 그것도 안되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본전을 뽑는 수밖에…….

피해자가 속출해도 막을 수 없는 학교당국이 문제가 아니라, 덤덤히 후배가 사기당하는 걸 보고도 지나가는 선배와 멀뚱히 당할 수밖에 없는 후배가 문제다. 그런 사람들은 직접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갉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길 영 목
〈화공·2〉

진의성군 구속은 정부통치의 문제

수세몰린 정부의 대국민 탄압 일환

지난 5월 1일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리던 동국대로 향하던 우리학교 신문방송학과 2학년 진의성 학우가 구속되었다. 그는 그 전날 고려대에서 있었던 청년학생 결의대회를 마치고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구속사유는 집시법 위반과 폭력혐의인데 고려대에서 있던 시위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경찰의 진술이 증거였다. 나이도 어리고 별다른 경력(?)도 없는 그를 어례적으로 구속한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선례를 볼 때에도 단지 쇠파이프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까지 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진의성 학우는 왜 구속당했을까. 검사의 말로는 진의성 학우는 본보기로 걸린 것이며 검사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이 사건은 단순한 검찰 자체의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김영삼이라는 문민정부의 통치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진의성 학우가 구속된 지 이틀후인 5월 4일자 한겨레신문에는 '준법투쟁도 형사처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합법성을 가장했을 뿐이지 사실상 불법 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것은 군사독재도 아닌 문민정부라는 바로 김영삼정권하에서 나온 말이며 버스노조의 파업때 이미 실행에 옮긴 내용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던 김영삼정부의 상황을 살펴보자. 상부대를 비롯한 각종 비리를 어정쩡하게 무마시키고 이회창 국무총리 등 개혁인사를 해임한 김영삼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개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활짝 열린 수입문은 김영삼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수세에 몰려 있는 김영삼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사건은 무수히 많다. 노동절을 기점으로 임금투쟁을 준비하는 노동자들과 그 선두에 서 있는 전해투 노동자 투쟁이 있다. 그리고 '청년학생 제3차 개입'을 선언한 학생들의 연대투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준법투쟁도 형사처벌하겠다는 전근대적인 통치전략을 고안해 낸 것이다.

김영삼정부의 의도는 남총련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지금 남총련에선 학내집회에도 경찰이 진입을 하고 심지어는 소모임 활동을 하는 2학년 학생들을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제 어떠한 작은 움직임도 정부 탄압의 빌미가 된다. 80년대에 붙 수 있던 불심검문이 다시 시작되고 강의교재인 '아리랑'을 가방에 넣고 다녀도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진의성 학우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구속되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것은 진의성 학우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굴힘이 없다는 소식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쇠파이프를 들었으며 다시 나간다 해도 계속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조 성 만
〈문리대 영문 3〉

화합의미 퇴색한 '한마당 행사'

공동체의식과 진정한 동참 아쉬워

올해는 우리학교가 태어난지 45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에서는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정성도 많이 들인것 같다.

수원에 있는 학생들도 한번은 지나치며 볼 수 있을 정도로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한마당'행사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나붙고 행사 당일인 지난 20일에는 학교버스를 이용하여 수원에서 서울캠퍼스까지의 교통편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으로서 지울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개교 45주년 행사 자체는 성대하고 화려했다. 또 서울·수원 캠퍼스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동참 하는등, 근자에 없었던 행사규모로 그 위용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사이전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보이는 행사의 화려함이 전부는 아닌듯하다.

수원에는 행사내용에 대해 서울과 똑같은 모양의 포스터만이 여기저기 나붙어 있었을 뿐 학생회 차원에서 동참을 권유 한다거나 각종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든가하는 적극적 홍보는 하나도 없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화려한 출연진과 노래공연판람의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끌렸던 구경꾼중 한사람이었을 뿐이다.

진정 경희인 전체의 화합과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화합이라는 전체적 의미를 되새긴 학우가 얼마나 되었을까?

경희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규모의 행사나 화려한 공연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전에 서로 기꺼이 모여 공동의 사안을 의논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의 성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 석 준
〈87년 졸업생〉

각종 증명발급 요금 너무비싸

정직한 요금으로 신뢰감 쌓아야

학교증명계(학적계)의 제 증명발급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가끔씩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증명(졸업증명, 제학증명, 성적증명 등)서들을 발급받을 때마다 증명서 발급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느낀다.

보통 증명서 한장에 제학생은 5백원, 졸업생인 경우는 1천원이 든다. 또 영문의 경우는 그 나름대로 추가적인 요금이 든다고 알고 있다.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사무소에 들러 발급받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에 비해 거의 10배나 되는 비용을 증명서발급에 낭비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학교입장에선 학교제정충당을 위해 필수불가결 하리라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일정한 수입도 없이 학기마다 충당해야 하는 등록금 및 생활비용에 증명서 발부비용까지도 만만치 않게 든다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졸업을 가까이 남겨둔 예비 졸업생이나 기 졸업생들은 학교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경우 한꺼번에 여러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어 왔다.

이런 사소한 불편 하나 하나가 시정되어 나가면서 학교도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하며 학교당국이나 복지위에서는 좀더 정직한 요금으로 제증명서 발급 수요에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준 형
〈전자·1〉

대중교통차량 배차시간 불규칙

소명감있는 직업의식 아쉬워

며칠전 저녁, 집으로 가기 위해 1:00-2번 잠실행 버스정류장에 갔다. 그 시간대에 모여있는 학우들의 수가 보통때보다 훨씬 많았다. 일정시간 배차되지 않은 탓이었다. '앉아서 가기는 다 틀렸구나.'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1시간여 가까이 끈질기게 기다렸다. 반이상의 다른 학우들은 마지막 버스마저 떨킨것도 포기하고 교문주위에서 지나가는 차를 잡기에 급급했다. "이걸 어쩌나, 이제 가도 지하철이 끊기면 어떡하지, 서울에 가도 또 갈아탈 버스가 없으면 어떡하지" 저마다 힌마디씩 걱정스러운 말들이었다.

그때 갑자기 교문주위에 있던 학우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게 아닌가. '무슨일이라도 있나?'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좌석 버스가 교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의 안도의 한숨.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우리는 늦은 시간 콩나물 시루에 실려 실려 는 신세가 되어야 했다.

입학하고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바로 교통문제이다. 버스는 많은데 정작 탈 버스는 없기 때문이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이리저리 마음고생과 귀중한 시간낭비, 또 좌석버스내에 서조차 빽빽히 밀착되어 서서 가야만하는 불편 등등… 대중교통 운수업자들은 이런 애로점을 알고 시간만이라도 확실히 지키는 서비스 정신을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 두 혁
〈토목공·2〉

열린소리

교수동정

장진 교수 방중

【서울캠퍼스】▲정진(문리대·물리학)교수=6월1일부터 6월4일까지 한·중 공동 심포지움 참석 및 논문발표차 중국방문 ▲민병순(치대)교수=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일본 치과보존학회 참석차 방일 ▲이진용(치대)교수=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뉴욕주립대학에서 'Immunolocation of P.gingivalis strains 9-14k-1 i W50'에 관한여 연구차 방미 ▲유기현(정경대·경영학)교수=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 노무라연구소 자료수집차 방일 ▲박주석(정경대·경영학)=5월22일부터 5월29일까지 DB EXPO/CONFERENCE 참석차 방미

취업안내

취업정보실로 문의

▲동양화재해상보험=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8일까지 723-6448연락, 공채 ▲국군홍보관리소=신입사원 ○명, 국문1명, 신방1명, 5월31일까지 754-1735연락, 추천 ▲한국전기초자(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5일까지 780-5875연락, 공채 ▲전조(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31일까지 850-8304연락, 공채 ▲한우리연구원(사·법)=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4일까지 810-2537연락, 공채 ▲제택스(주)=신입사원 ○명, 경제, 경영, 회계, 5월25일까지 518-2006연락, 공채 ▲거성주택(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8일까지 534-2843연락, 공채 ▲럭키금성=인턴 ○명, 경경대 5명, 5월25일까지 787-1234연락, 공채 ▲청전(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8일까지 062)230-2250/1연락, 공채 ▲태흥산업(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8일까지 0343)52-2151/7연락, 공채 ▲범아석유(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24일까지 565-0051연락, 공채

등 기

등기물 충무과로

【서울캠퍼스】▲고영신(영문·89) ▲이윤규(영문·2) ▲김정호(물리·2) ▲호정오(국문·4) ▲김선주(국문·1) ▲지주현(회계) ▲유선종(무역·4) ▲이익준(미교·88) ▲김수정(영교·3) ▲조인정(영교·1) ▲정경아(가관·3) ▲조경철(의예·2) ▲김성진(간호·2) ▲김은성(의예·1) ▲전진수(한의 본·4) ▲백진용(한의 본·4) ▲송재철(한의 본·4) ▲이희건(치본·3) ▲이한주(치본·3) ▲목지오(치본·3) ▲장성욱(약학·2) ▲유길종(체육·3) ▲남청우(체육·2) ▲이병호(삼의원·311)

【수원캠퍼스】▲김미란(일문·3) ▲허경선(일문) ▲박상배(행정·4) ▲정재훈(전자·4) ▲김동휘(토목·2) ▲유재욱(화공·4) ▲이진호(원자·3) ▲이제환(건축·1) ▲김민아(농학) ▲안창욱(산디) ▲문소영(행정·2)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박계수(한의·91) ○학생증=▲강연주(생물·91)

【수원캠퍼스】○학생증=▲정명현(전자·1) ○지갑=▲이진원(일문·90학번)

동문모임

합포고 동문회

【서울캠퍼스】▲광주 중앙·금호고=25일 오후5시 롯데리아 ▲대원고=27일 오후 5시 대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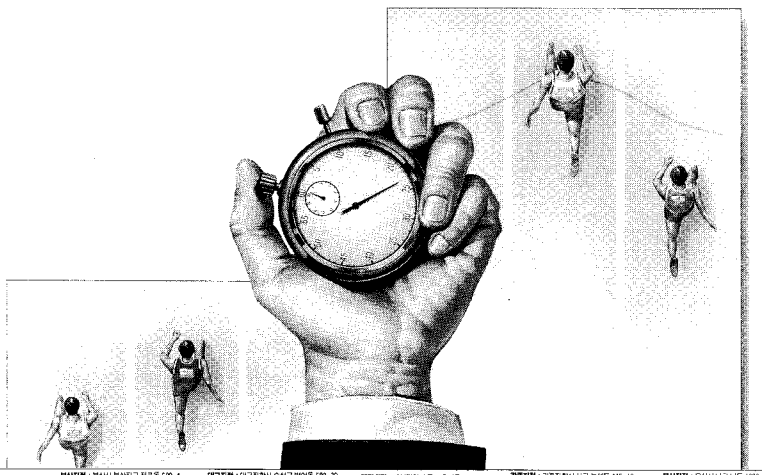
【수원캠퍼스】▲경기고=26일 오후5시30분 공대식당 ▲합포고=26일 오후6시 공대식당 ▲강릉고=26일 오후5시30분 공대식당 ▲상문·은광고=27일 오후5시30분 외대앞

YUNDAI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A4용지를 23초만에—

프린트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현대프린터 제노비아 6410

컴퓨터 만큼이나 중요한 프린터 선택 — 잉크젯 프린터라고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인쇄속도, 선명도, 호환성, 편의성, 경제성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이제, 프린터도 현대 제노비아가 앞서갑니다.

현대 제노비아, 128노즐·450CPS로 잉크젯 프린터의 하이스피드 시대를 연다!

■ 기존 잉크젯보다 2배이상 빠른 고속인쇄 !
128노즐과 H/W의 한글화로 450CPS의 고속인쇄를 실현, 동급 잉크젯보다 2배이상 빨라졌습니다.

■ 레이저급의 뛰어난 고선명 해상도 !
첨단 비블방식으로 레이저급 300DPI의 해상도를 구현, 문서, 그래픽 등을 깨끗하고 품위있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어떤 S/W도 소화하는 완벽한 호환성 !
KS, KSSM, HP Deskjet 등의 에뮬레이션 내장으로 워드프로세서, 그래픽, 스프레드 쉬트, CAD 등 어떤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 에뮬레이션의 선택도 한번의 키조작으로 !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모두 키조작 한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에뮬레이션의 변경도 키조작만으로 가능합니다.(국내최초)

■ 레이저 방식의 56KB 대용량 입력 버퍼 !
호스트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레이저 방식의 56KB 대용량 버퍼에 저장한 후 인쇄, 호스트의 운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자동/수동은 물론, OHP 필름까지 다양한 용지 운용 !
최대 100매까지의 자동낱장공급에서 A4, 봉투 및 OHP 필름까지 다양한 용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능만큼 우수한 경제성 !
합리적인 가격뿐 아니라 잉크 카트리지의 비용까지 저렴, 유지비가 거의 필요없는 경제형 프린터입니다.

현대프린터 전문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처) 398-4423, 4

현대전자
유통영업부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66 (현대전자 B/D 12층)
TEL : 398-4423~5

강남총판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6 태평빌딩 전 화 : 528-5340~1
부산지점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590-4 전 화 : 807-1232, 646-2000
대구지점 :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590-30 전 화 : 751-0304, 955-2300
대전지점 : 대전직할시 동구 용전동 13-25 전 화 : 625-8722, 624-2000
광주지점 :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동 415-12 전 화 : 365-2005, 68-2000
울산지점 : 울산시 남구 남동 1362-2 소주은행빌딩 2층 전 화 : 61-3381